

지혜의 말씀

불기 2564년 11월 / 통권 477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 (증도가)

심 시 근 법 시 진
心是根法是塵
양 종 유 여 경 상 흔
兩種猶如鏡上痕

부처님 마음 귀하게 여기고 부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
이러한分別심이 거울 같은 마음에 먼지 쌓이게 하네.

흔 구 진 제 광 시 현
痕垢盡除光始現
심 법 쌍 망 성 즉 진
心法雙亡性卽眞

分別심 모두 없애면 비로소 마음의 광명 드러나니
마음과 말씀 둘 다 잊으면 곧바로 참된 부처님 모습이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격의불교(格義佛敎) / 운성스님

생각의 터 · 8

사자단상(四字斷想) / 무경스님

불교상식 · 11

부처님의 생애

알림마당 · 14

대광사 11월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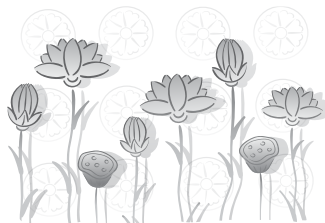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제20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격의불교(格義佛敎)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중국은 역사가 오래고 많은 사상가가 배출 되었고 인구가 많고 긴 문화를 이어왔기에 토착 종교와 사상이 이미 뿌리 깊게 민중을 지배하고 있었다. 다만 교주를 위주로 하는 절대 신앙이 없었기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진 않았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가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한 저항을 받았는데 이미 오랜 세월에 뿌리 내린 저들 나름의 사상과 종교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저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자기들이 사는 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는 자존감이 강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생겨난 종교를 싫어하는 거부감이 매우 깊었다.

서기 67년 후한 ‘명제’ 때의 ‘후한서’에 불교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이미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력이 점차 커지는 것을 염려한 도교와 유교인들이 여러 방해 공작을 벌리는데 도교와 불교의 겨루기인(비법분경 非法焚經)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불교를 박해는 초유의 사건인 ‘삼무일종의 폐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종교나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크던 작던 일단의 저항은 있기 마련이다. 고려나 백제의 경우는 기록상 들어나지 않지만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도 이미 전해 내려온 토착 신앙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불교사에서 격의 불교란 말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 되는데 격의불교(格義佛敎)란 어떤 격식을 의지한 불교라는 말이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행복해진다는 생각에 매달리는 일반에게 비울수록 행복해진다는 석가의 가르침을 전달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 할 반야는 비움인 공(空)을 바탕으로 한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청정하게 비워진 맑은 정신이 세상 제일의 지혜가 되고 걸림 없는 자유가 되어 삶을 평화로 인도한다는 가르침이다.

초기 경전 번역가들은 쉽지 않은 이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도교학과 유교학을 빌렸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설명법을 빌렸다. 이런 일은 한참이나 이어졌고 결국 불교를 도교나 유교 사상과 혼동하게 하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석가의 제자들은 성을 석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도안(道安 312~385) 스님은 격의불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원전을 읽고 직역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분이
다. 순수 불교로 회귀를 이끈 선도자였다.

격의 불교에서 벗어나서 석가님 가르치심을 직접 접하고 가르침의 본질에 합류하기 위한 움직임은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인도 순례를 나섰다. 당시의 인도 순례(여행)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위험이 덩벼드는 험난한 길이었다.

가르치심을 보다 깊게 깨닫고, 보다 바르게 깨닫기 위해 죽음을 무릅 쓰고 나선 그들이었기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열 명에 한 둘에 불과했다. 그렇게 그들은 길에서 숨을 거두고 골짜기에서 목숨을 잃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풍토병에 죽어갔다.

위험을 알고 나선 걸음이었기에 길에서, 절벽에서, 짐승에게서, 독사에게 죽어가는 순간이 절망이 아니었고 고통이 아니었다. 목숨을 버리면서 지켜내는 소중한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소중한 하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었다.

송나라 즈음에 ‘한역장경’(漢譯藏經)이 이루어지는데 이즈음까지 인도를 목숨 걸고 구법순례한 사람들은 130여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열세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물론 ‘왕오천축전’의 해초도 포함된다.

자기를 소신 있게 관리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남을 의지해 자기를 들내는 것은 언젠가 자기 본질을 잃게 된다. 당장은 이로운 듯 하지만 결국은 정체성을 잃어 자기 가치를 잃게 된다.

남을 의지해 성장을 꾀하는 일이 당장은 도움이 되는 듯하지만 결국은 자기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데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해야 한다.



사자간상(四字斷想)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9월 3일, 조계암 선원에서 하안거를 해제한 다음날 부라부라 대광사로 들어 왔다. 절차상 주지 취임 한달 전부터 인수인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이판승으로서 줄곧 선방에서 공부만 했던터라, 사판승의 업무인 종무행정에는 문외한이었다. 때문에 한달이란 시간도 인수인계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게다가 절 사정상 한달은 커녕 보름이 갖지난, 9월 초하룻날 취임식을 하고는 곧바로 소임을 시작했으니, 뭔가 급류에 휩쓸려 정신없이 허우적 거린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부리나케 소임을 시작하는 것이 절집에선 다반사고 묘미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심정으로 소임에 임하고 있다.

시작이란 단어를 들으면 설렘과 망설임이라는 두가지 이미지가 떠오른다. 마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느껴지는 감정처럼 말이다. 하지만 막상 주지 소임을 시작하는 필자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의외로 담담함이다.

아마도 주지 취임이 마른 하늘 날벼락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은사스님 의지에 따라 차례대로 소임을 살아온 사형들을 지켜봐 왔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취임식날 취임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이런저런 글을 찾아보며 나름 그럴듯한 취임사를 준비 했었다. 그런데 남의 글 베껴서 장황하게 읊은들 진심이 전달될까 싶기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 신 불자님들이 조금이라도 기억 하실까 싶어, 기억에 남을만한 한마디 말로 간단히 취임사를 했다.

'스님 노릇 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지가 스님 노릇 잘하는 것이 주지 소임 잘 사는 것이고, 스님이 주지 소임 잘 사는 것이 스님 노릇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도님들이 원하는 대광사 모습도 절이 절 같이 가꾸어지고, 스님이 스님답게 사는 것일 것이다. 때문에 '스님 노릇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생전 처음하는 주지 소임이라 아는 것도 없고, 애초에 남들과 생각하는 바가 달라 머리 깎고 출가했으니, 불자님들의 공감을 얻고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쩌면 세상 물정 모르는 햇병아리라고 할 수 있다. 많이 부족할 것이고, 많이 어설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시작이란 본래 작고, 보잘것 없고, 어설피 그런 것 아니겠는가?

사실 부처님도 뭐 대단한 것을 보고 출가를 결심한 것이 아니다.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 그야말로 일상의 소소한 사건을 보고는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하셨다.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마찬가지다.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광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다. 그냥 밤하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위 없는 지혜를 얻으신 것이다. 처음 가르침을 펼치실 때는 겨우 다섯 사람만이 귀담아 들었을 뿐이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7절에 보면, '그대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 끝은 지극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이 있다. 물론 이 말씀처럼 거창한 미래를 희망하는건 아니다.

그저 주지 소임 마치는 날까지 '스님 노릇' 잘해서 신도님들께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을 뿐이다.



2. 부파불교 교학과 수행의 특징

이러한 성인의 수행 단계를 거쳐 아라한과를 증득한 수행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의 무학(無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최고의 깨달음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불교와 부파불교가 지향하던 수행의 목표였다.

사과(四果)를 얻은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부름과 더불어 각각의 사과로 향하는 사람 또한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그들을 사향(四向)이라 한다. 수다원과를 얻은 사람뿐만 아니라 수다원과로 향하는 사람 또한 성인의 부류에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을 지칭할 때 사향은 사과와 함께 사향사과(四向四果)로 불렀다. 이들을 또한 사쌍팔배(四雙八輩)라고도 한다. 사쌍팔배란 4가지로 성인의 길이 각각 향(向)과 과(果)로 한 쌍씩 전개되어 8가지 성인의 무리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부파불교의 수행도는 오위(五位)로 분류된다. 첫째 자량위(資量位)다. 이는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단계로 그릇된 환경과 악한 벗을 멀리하는 것이다. 둘째 가행위(伽行位)로 사성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하는 단계인데 이에 따른 기초적인 수행을 닦는다. 셋째 견도위(見道位)로 사성제를 완전히 체득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넷째 수도위(修道位)는 선정을 통해 번뇌를 없애가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무학위(無學位)다. 이 단계에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여 열반을 실현한



다. 견도위부터 무학위는 성인의 경지로 성인들의 사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의 수행도로 37조도품(助道品)이 중요시 되었다.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에서는 아라한 이상 올라설 수가 없다.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다. 아라한은 부처님이 갓춘 10가지 덕목 중에 오직 하나인 ‘응공’만 공유한다. 그리고 부파불교에서는 무수겁 동한 수행과 이타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신 분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와 큰 차이점을 보여 준다.

4) 아라한, 보살, 부처님에 대한 새로운 견해

수행의 단계로서 사과를 강조해 오던 부파불교에도 새로운 견해가 제시된다. 부파불교 주에서도 대승불교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중부에서는 수행의 최고 경지라고 여겨왔던 아라한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즉 아라한들에게도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라한도 유혹에 흔들리고, 무지하고, 의심이 남아있으며, 다른 이의 도움에 의해 깨달음을 얻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며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대중부 스님들은 아라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새루은 이상형을 제시하였다. 다시 상좌부에서는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의 상태를 보살(菩薩, bodhisatta, bodhisattv)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대중부에서는 보살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단계를 말하며, 이 단계를 거친 이들은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모든 중생이 수행의 단계만 거치면 다 깨달



음에 이를 수 있다는 보살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다. 대중부의 이러한 보살에 대한 개념은 이후 대승불교의 큰 흐름을 형성해 가게 되었다. 아라한의 불완전성을 주장한 대중부는 보살사상의 모태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는 또한 불성(佛性)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연결되어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다.

부처님 생존 당시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수행해 온 교단의 장로들은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스승의 깨달음과 같은 경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부파불교의 대중부에서는 단순히 역사적 생존 인물로서의 부처님을 넘어 깨달은 부처님과 그 깨달음의 본질에 관심을 기울였다. 깨달음이 무엇이며, 깨달은 존재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깊은 종교적 탐색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닌 법의 형태로서의 부처님, 즉 법신(法身)이라고 하는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일생을 수행과 전법에 힘써온 부처님은 일시적, 역사적 인물로서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열반에 든 이후의 부처님은 완전한 존재로서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며, 열반의 세계에서 삼매에 머물러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인물로서의 부처님은 초월적 존재인 법신의 화현이다. 다문 중생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침을 베풀다가 때가 되어 열반에 드셨을 뿐이다.

이러한 형태로 부처님의 모습은 세상 곳곳에 화현해 계시며, 온 우주에 가득 차서 어디를 가든 존재한다. 이것이 대중부가 부처님을 보는 관점이었다. 대중부는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 대광사 11월 법회 및 행사 ◎

- ◆ 11월 9일 : 관음재일
- ◆ 11월 15일 : 음력 10월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1월 17일 : 초하루기도 회향
- ◆ 11월 29일 : 보름법회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대광후원회

(9.11~10.11)

찬불단 50,000	이지원 10,000	정미선 20,000	원광한의원 100,000
이연숙 100,000	정진이 10,000	이경화 20,000	(주)카텍 300,000
홍기준 30,000	김지현 50,000	정대식 30,000	
김경남 20,000	변창인 20,000	박미애 10,000	
황두관 10,000	오현철 20,000	이봉희 8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유미란 50,000 강란 10,000 후원회 100,000

♥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조한분 25,000 서경스님 1,500,000

♥ 지혜의말씀 후원

한덕분 100,000 이재봉 10,000

♥ 불자독송집불사동참

김위연영가 500,000

♥ 대웅전 냉난방기 불사동참

연화수 2,000,000 무기명 2,000,000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佛紀 2565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0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제20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요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1년 3월 2일~3월 24일	2021. 3. 30(화)~12. 8(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21년 3월 24일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1일부터 ~ 2021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